

여론매체

민족교육 안살하는 UR협상 반대한다

사설

올바른 인식 기초한 한표 행사

제23대 총학생선거가 다했다. 몇해 동안 음악의 선거들을 보아왔지만 이번 선거는 유난히 민족교육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될 필연성을 가진 선거라 규정해도 될 것이다.

이 관심은 1차유세때 보였던 막연한 과격함과 학내를 뒤덮고 있는 홍보물의 홍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대중의 관심이다.

첫번째로 92~93년 권력재편기에 즈음해 91년은 일대혁을 갖는 시기인 만큼 정치투쟁에 있어 어느 해보다도 과학적 노선에 근거한 대중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88년 이후 공들여 쌓아 놓은 학자부의 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대해야 할 시기이다. 올해 끊겨버린 학자부의 맥을 새로이 잇는 작업은 한 정파나 몇몇 대중간부들의 결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교수회에 걸렸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져 내린 지금, 재단 재편을 수 수포방관하는 것은 통국주의의 열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인 만큼 대재단투쟁에 대한 열기 또한 고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산만해진 학우대중들의 주요

관심을 파악하고 정치투쟁과 학자부를 담담한 주제로 함께 서 나가야 하는 때이다.

이런 연유로 학우들은 이번 선거에 눈을 떴지 못하고 있다.

선거당일 어느 후보의 정견이 옳은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일지연결학생회와 자주적 학생회, 민주연합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의 주장내용은 이제까지 개회되었던 유세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인식되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유권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선택을 하느냐이다.

오늘 유권자들이 생각해야 할 점이 공히 몇가지 있다. 선거이후 나타난 앞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올바른 학내의정세분석을 하고, 이들을 기초로해 자신의 의사집행을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의 사집행은 투표로 가시화 될 것이다.

23대총학생선거는 결코 일일투표가 아니라 이후 수년간 재단 재편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우리는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에서 인식을 하는 것이다. 투표의 장으로 뛰어 갑시다.

미국이 조종하는 자주국방

제22차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양국간에 합의된 내용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이리저리 위협하게 했다.

이번 안보회의 역시 기존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한채 단순히 '양국간의 지속적인 안보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세와 한반도상황은 전후40여년간 실재없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군사우호관계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더구나 한국의 입장에서 엄청난 핵수의 방위비분담금을 증액받기도 마땅한 민족해방의 모습이 더욱 기이하게 여겨진다.

한국이 미군주력으로 인해 부담한 총방위비 분담규모는 88년의 2억2천만달러보다 무려 18%가 늘어난 26억2천만달러로 1년동안 나라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중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이 4억3백만달러였고 여기에 포함된 현금 지원액이 7천만달러수준에서 1억5천만달러수준으로 배상이 많아지게 되었다. 미군부대에 있어 일하는 한국인고용인들은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인권을 하고 생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마당에 미군들에게 쥐어 준 국민의 땀물은 마땅은 어디로 쓰여지는지 행방조차 모르고 있다. 한

반도에서 주둔하는 미군은 완전한 치외법권을 누리고 무한한 방공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과연 그들에게 더 많은 향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원하는지 생각해 보자.

90년세우임은 예상액보다 4조원이 더 건져 국민들의 생활고는 저물리는 데 무계획적으로 거둔 세금은 미군을 싹쓸고 미국을 예산편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데 쓰여지는듯 하다.

한미연합사 지상군사령관과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기점으로 미군소장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한다는 내용은 나름대로 군사주권의 일부를 되찾았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지만 이것의 실체가 지켜질 수 있는지는 역시 의문스럽다.

대미투쟁이 계속 되는 한 지상군사령관은 명목상의 자리일수밖에 없으며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라는 것도 평화정착으로 바뀌기전에는 별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결국 22차연례안보회의의 역시 남북간의 불가침협정, 군축 등에 걸림돌만 만들어 통일을 멀어지게 했고, 주둔미부담만 커져 국민에게 짐만 늘어주게 되었다. 정부는 자주국방과 국가안보를 국민들의 인식과 통일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미국에 의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14일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10·13 특별선언' 실천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른바 '범피와의 전쟁' 선포한달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앞으로 각 부처가 취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고회 자리에서는 '범피와의 전쟁' 선포가 물고은 국민들의 반감과 우려, 시행과정상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5대 범피발성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7% 감소했고 정거율은 15% 증가"했다는 등 실적 위주의 진단이 오고갔고, 여기에 "연말까지 총력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 2단계 실천전략과 지속화방안을 수립, 추진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총합적 지시'가 내려졌을 뿐이다.

범피를 낚는 사회적 근본원인의 제거와 인간개조 없이 총기, 사형, 무기징역 등으로 범피를 막으려는 것은 사회학의 기초조차 망각하고 있는 일이다. 가까운 예로 모든 경찰이 총기를 휴대하고 최선의 전차장비는 물론 초중고급 교도소가 지 가지고 있는 미국 등에서 범피가 줄어들기는커녕 속수무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번 '범피와의 전쟁'은 탄성광경 자체가 사생아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선포된 지난 10월13일은 바로 보안사의 불법민간인사찰을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권의 부도덕성과 범피가 극명하게 폭로되는 그 날에 단 한마디 반성의 말도 없이 '범피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포'는 도리어 정권에 의해 저지러진 또하나

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범피와의 전쟁'이 담고 있는 문제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15일, '전쟁선포'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노동부와 내무부는 학원노사문제로 발생하는 폭력적 집단행동에 대한 조기 공권력 투입, 노동계 주요인물의 철저한 동향파악, 문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 방정등을 보고하고, 나아가 그동안 민족운동·노동운동등을 탄압하던 법적·제도적 장치의 확대강화를

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 피사측의 요청조치 없는 상태에서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하던 조합원 전원을 연행함으로써 '전쟁'의 서곡을 노동계에서 열었다. 또한 안전지역 4개 상담소가 경찰이 물려와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들을 연행해 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의 민주노조에 이른바 '업무조사'가 대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되돌아 보면 이번 전쟁선포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을 지하철공사 등 괴업현황에의 대규모 공권력투입을 통한 대대적인 노동운동탄압으로 귀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올해 5월의 '특별담화'는 당시 세 부문의 민주개혁요구와 부동산투기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위기에 몰린 현정권이 이른바 '총체적 난국' 극복을 위해 '비상한 자세'로 취한 조치였다. 이 '담화' 역시 민생치안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지만 결국 강력한 제재의 대상은 민주적인 노동운동이었을 뿐이었다.

말하자면 이번 '범피와의 전쟁'은 현정권이 취하고 있는 3년째의 큰 '공세'인 셈이다. 이 '전쟁' 역시 현정권의 위기와 맞물려 있음은 물론이다.

시사



조성두 (주간전국노동자신문 편집국장)

민주노조탄압등 노동계에 연 '전쟁' 서곡

의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범피와의 전쟁이 아니라 '민중운동에 대한 전쟁'이 아니냐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진노협 중앙위원회는 '선포'가 "사회화면적으로 고조된 정권에 대한 불신을 민중운동 세력에 대한 정면대응으로 맞선으로써 보안사 파문 이후 고요되어 있는 국민대중의 투쟁열기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적극 대응해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실제 '선포'이후 경찰은 탄압선포 조의 경우처럼 냉각기간을 거쳐 합법

이다.

이번 전쟁선포를 보면 노동계의 많은 사람들은 지난 88년 12월28일의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와 올해 5월7일의 '사국관련 특별담화'를 떠올리고 있다.

88년의 '특별지시'는 여소아대 국회가 형성되고 청문회 정국이 열리던 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던 현정권이 인신매매범과 마약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민생치안을 확립하겠다고 하면서 내린 조치였다. 그러나 이 '특별지시'가 통상급속 안장공방, 서

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과다로든 만들어보고, 학 생회실이나 강의실에 당원을 정해놓고 꽃병도 갖다놓고 무질서하게 놓여있는 책걸상을 깨끗하게 정돈한다면, 우리들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루일과중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것저것 소모임도 만들어보자. 문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은 문화패를 전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학회를 만들어 보자. 간부들은 이 모임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자.

우리들의 처지에 맞지 않은 큰일 부터 하라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심리와 사람의 공동체건설을 우리들 스스로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열린글터

각종 악선전등 선거 풍토에 실망

학자투쟁해요소, 우리가 제거해야

관바람이 이는 계절에 내어 주는 생소한 최초의 투표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대학에서의 선거라던 이 대통령 선거보 다는 더욱 공청하고 인맥이나 파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신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조그만 기원은 어찌구무 없이 무너졌으며 당선되기 위해서 서로를 비방하고 선거때만의 지나친 인사성품과 너털공개는 대학에서조차도 버릴 수 없는 하나의 오류였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동국의 학우들이 진정으로 학교에 많은 성과를 가져다 줄 능력있는 후보를 뽑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특히, 이번 상경대 선거의 경우 두드러진 점은 선거 전부터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불신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나돌았고 선거 후에도 총 투표지수의 투표용지보다 한참 더 많은 용지가 남고 개표 후 선관위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학내에 분분히 나돌아 돌의를 빚었다.

누가 더 경쟁했고 능력있으며, 누가 더 앞으로 1년 동안의 학원 자주와 투쟁과 정치 투쟁 사업을 잘 풀어 나갈 것인지를 떠나서 아직도 대학에 있어서의 선거가 예전과 다름없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과정을 얼마나 더 겪느냐 하는가의 회의가 든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 동국인의 앞으로의 학원 자주화와 민주화 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감히 가늠할 수도 있다.

최낙형

(상경대 관공경영학과)

신뢰와 사랑의 학생회는 우리손으로

무질서하게 놓여있는 책걸상, 바닥에 널부러진 휴지들과 라지라지 붙여있는 점, 자족한 담배연기-우리들의 생활터전인 학생회실의 초상이다.

도무지 학생회실에 찾아가고 싶지 않다는 과성원들의 말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학교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위상이 무색한 지경이다. 그러나,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겠는가. 우리의 문제

이것은 절다리에 불과하다. 주변은 서로간의 무관심, 간부와 성원간의 불신, 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학회, 문화패)의 부재이다.

흔히 학원을 학생중심이 자 학생들의 생활터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학교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위상이 무색한 지경이다. 그러나,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겠는가. 우리의 문제

최성곤

(사회대 사회학과)

도서관,대출증지 대신 벌금제 타당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우로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한마디 적고자 한다.

도서관자랑으로 필요한 책을 빌려보는데 기한이 보통 열흘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기한 내 책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체'가 적용되어 빌린 날짜에 따라 1주일부터 6개월까지, 혹은 완전히 대출증지까지 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우들의 무책임성이다. 필요에 따라 책을 빌려갈 때는 언제고 바쁘다는 이유로 갑작 있었다는 핑계로 대출기한을 넘겨버리고 마는 것이다. 마치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투고 나를 때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학생들도 잘해야겠지

만 도서관에게도 좀더 신신하고 효율적인 도서관운영을 위해 한가지 제안과 같다.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출증지만 시킬 것이 아니라 벌금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다.

학우들에게 충분히 인지도된 후 벌금제를 적용해서 얻어지는 돈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책을 더 구할 수도 있었고 또한 학생들도 더 잘 지켜주리라 확신한다.

면학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민족사학 동국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직원 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제23대 선거 유세

정적

각종 악선전

생일을 축하하려고

■홍주형 생일을 축하했어

형의 여러가지 목표 모두 달성되길 바란다는 말을 생일 선물로 드릴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늘 곁에 있는 후배

■집에 못가 미역국까지 먹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상배(18일), 인호(20일), 형신(23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 받아야 해!!

-89일딸딸일동

축하합니다

■남국형, 광명형, 민환형, 동식형.....

90학년도 졸업하시는 東佛(동불)산배님들의 졸업과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재학생일동

■경주캠퍼스 불교아동학과

87학번 유정미선배님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배한창동

■병팔이의 의로운 가을경험을 축하하며.

식민지하의 병팔이가 더욱 젊은 펜대를 휘두르길.

앞으로 동지들로 가득한 조지를 만들자.

-회

■경희누나!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찬란한 고비의 절정체를 감탄하며 이번 '모듬잔'에 훌륭한 것을 축하! 축하! 합니다.

○기간:1990. 11.21~11.24

○장소:옥야실(학생회관3층)

○여는이:미술학과 서양화전공

-미술학과 일동과 ○△동생이

■모입시다

■대우연합동문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90년도 2학기를 정리하면서, 91학년 후배들을 위해서 차라 두 한잔 쉼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전하게 우리의 향수를 나누면서 목차도 한잔 합시다.

·연차:11월23일(금) 오후5시

·장소:불상위

·회비:3,000원

-대우연합동문회장

■다사다난했던 경연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알고 싶은 일곱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동지 동창들의 소식입니다.

이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 그 쌓였던 정을 풀고자 합니다.

·연차:1990년 12월15(土) 오후4시~9시

·어디서:동국대학교 회화문근처 신라호텔2층

P.S:이광호, 이동희, 남기석, 이호준, 김준식, 김동식, 배찬신, 정대순, 이희용, 조일권, 박근원, 장한석 형님들의 출연을 축하합니다.

-재 동대 한성고 동문회

■90東佛동문회 송년법회 및 심의회원 환영회

·일시:불기 2534년 12월8일 오후 6:00~9:00

·장소:PLAZA HOTEL 4층 난초홀

·대상:동문 및 가족, 역대 지도교수님 내외분

가끔씩은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한해 전담심미대, 삼천배며 무수한 절을 하며 가슴에 새기던 부처님 이름마냥 기억속에 자리한 범우들.

각자의 원은 생취되어 가고 있는가.....

그 끈끈한 인연의 끈아풀은 마음의 꼬리표가 되어 손짓한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미 한마음이거든 흠이된 몸일랑 한번 모아봅시다.

‘삼불하세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동문회

■동국보현회 제2차 국보사찰순례 법회

·연차:12월8일(토요일)

·장소:강화 전등사 및 마니산 참성단 참배

·집합안내:12월8일 오전9시 50분까지 정각인 앞

·문의:구내전화 2283

-동국 보현회

■잘해봅시다

■힘내세요.

선거를 오늘 내일 앞두고 식음을 전배(?)하라고가 뛰어들

동학! 광장

공고

199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아래

1. 기 간: '90. 11. 26(월)~11. 28(수)
2. 수강신청서교부 및 접수:소속대학 교과과 및 학과
3. 대 상: '91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전원
4. 유의사항

가. 교과목의 학습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등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다. 제1학기 개인별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학과에서 교무반기 바람.

교무처장

학내기회

민족교육 압살하는 UR협상 반대한다

대중적 사회진출모임 건설 서두를때

많은 학우들이 '졸업'이라는 낯말을 떠올리게 되면 가슴앓이와 함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가슴앓이는 졸업이후에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담보하는데 따라 등장하는 것이며, 두려움은 취직자체의 가능유무에서부터 전공을 살린 취업, 자신의 직장내에서의 삶의 구원까지 여러문제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에 존재하는 학우들의 특색상나오는 것으로서 사회에서의 올바른 역할이 여러가지 난관과 사회구조적문제에 의해 왜곡되어 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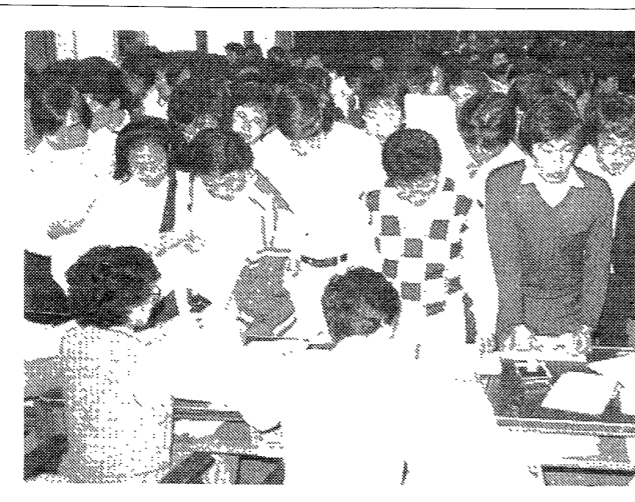
따라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학우들이 졸업을 올바르게 준비함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담겨야 하는 과정이 대졸 사회진출운동인 것이다. 87년 6월항쟁과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우리민중의 가슴속에는 "우리일은 우리힘으로"라는 자주정신과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다"라는 단결의 정신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존, 억압, 예측의 사슬을 끊고 다수의 민중들이 자신의 삶의 올바른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운동에서는 운동의 대중화에 의해 3·4학년 고학번들을 중심으로한 올바른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게되며 노동운동에서는 기간에 화이트칼라, 중산층이라는 허구적의식을 극복하고 '주인' 주는 데로 시키는 시키는대로를 넘어선 사무직노동자들의 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운동의 발전에 의해 학생운동내에 사회진출운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학우대중의 객관적 처지의 하락과 사무전문, 기술직 노동운동의 발전에 대하여

어떤 교수님들은 "근래에 들어와서 대학문화가 많이 삭박해졌다. 예전에는 이리저리 없었는데"라고 말하곤 한다. 실제로 50, 60, 70년대 대학캠퍼스는 낭만적이고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 2학년만해도 취직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이 폭박 차며 책들도 삭박한 분위기가 된다. 왜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의 특권적위치가 보장되었던 기간의 대학생들과는 다르게 저급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로 지위하락하게 된다. 1945년 이후 50년대까지의 미국의 식민지대학에 대한 선차적요구는 외교관, 고급공무원, 경찰, 관료, 군인등의 국가기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학에는 법정대를 중심으로한 인문계열학과가 주류를 이루며 졸업이후 관료기구의 상층으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이 50년대까지의 소위 인기학과(?)가

사회진출 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법정대라면 60년대는 경성계열학과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던 것이었다. 60년 4.19민주항쟁이후 포린노조설립, 노동조합과 새로운 노동자전국조직을 건설하기위한 흐름, 실업자대책위원회의 투쟁, 청년학도들은 반외국계국통일투쟁의 고양운동으로 위기에 몰린 미국은 한편으로는 군화발로 다른한편으로는 차관의 도입을 통한 중속적 자본주의발전을 꾀함으로써 실질민중대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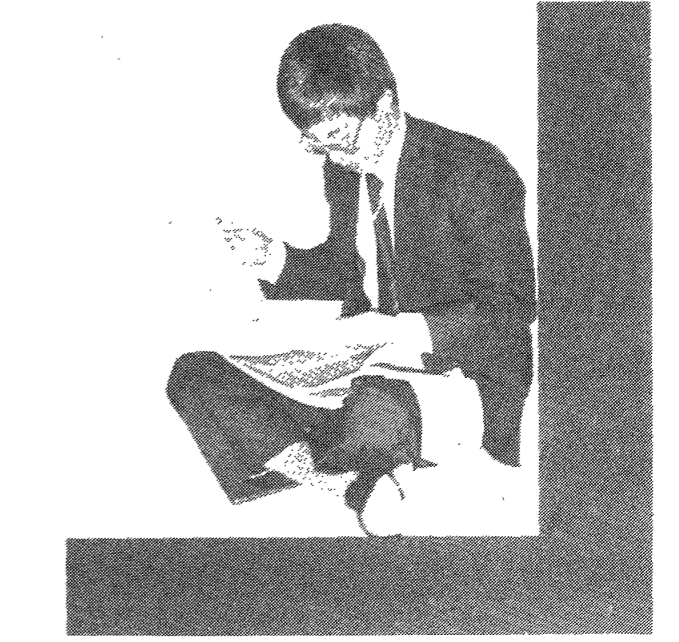
◇해마다 수십만 명의 대학생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의 원인은 식민지사회의 객관적조건에 의한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50, 60, 70년대를 살아왔던 부모님들의 대학생자식에 대한 기대와 90년 자기가 처한 실재적처지와 의외로 고통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지위하락과 더불어 사무, 전문, 기술직 노동자들도 객관적 존재하락에 처하게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운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투쟁, 13개 업종별 노동자들의 투쟁, 올해 KBS연론노동자들의 연론민주화투쟁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대학생들의 졸업이후 사회에서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역으로 대학생들의 거의 대다수가 취업이해 사무, 전문, 기술직 노동자로 전락되어지게되며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조그마한 소망, 예

속에서 나오는 전형속에서 나타나게되며 우리학교와 타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로 간추려보고자 한다. 첫째, 올바른 사회진출운동은 건강한 민족관과 예비노동자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진출과정에서 부딪치게되는 여러고민들(취업가능 유무, 전공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사법대의 교사로의 취업 유무등)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신문방송학과학우의 내과 K-B-S에 있었다면 올해 K-B-S연론민주화투쟁시 어떻게 했어야 했다, 교사로의 취업가능성의 문제등 사회에 나가서의 문제까지 갖가지 문제가 식민지적국의 사회구조적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진출운동은 자신의 삶의 처지와 조건에서 출발하여 올바른 사회에서의 역할-즉 건강관한 민족관-을 인성관화시켜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둘째, 패배적이고 끌려다니는 식의 이후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닌 이념의 현실을 직시하고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강한 노동자상을 가져야한다. 어떤학교 공과대학 4학년학우들은 2명학우의 제안에서 10명의 모임을 가지면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역할'에 대해 토론을 했다. 초기에 다수의 학우들은 어차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자 무엇을 할지였으나, 우리사회가 우리들의 삶의 실재를 보장하지못하는데 극복할 수 있었느냐는 식의 패배적이고 의존적태도를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모임을 주도하는 두명의 학우들의 헌신적 동료애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분야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이 감동되어 변화하기 시작해 과학기술자의 사회속의 중요한 역할과 사회적문제, 노



◇개인적 사회진출이 아닌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자기 삶을 사회속에서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이 사회진출운동의 첫걸음일 것이다.

4학년졸업학우들이 다양한 소모임을 통하여 사회진출이후의 올바른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는 대중적요구에 맞는 창조적투쟁방식을 개척하고 대중자신(조그마하지만) 참여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셋째, 모범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아닌 구체적투쟁과 이를 통한 성과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사회진출운동의 본성적요구로 대중적운동이기에 대중운동의 방식은 각단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학교의 모범, 타학교같은 계열이 고민과 성과물, 현역과 예비역의 차이에 의한 모범적사업방식등이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기과, 자기단체등의 특수한 처지와 조건등을 정확히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학교 사회진출운동의 수준과 과제에 대하여

이들모범 모범을 보이고 모범의 과정에서 건강한 간부가 등장함을 통하여 확대 발전되는 것이다. "조사하지 않는 자는 말하지 말라"가 사회진출운동을 고민하는 학우들이 가져야할 자세입니다. 기간 사회진출운동은 문제의식을 가진 소수를 중심으로 일부고민을 가진 학우들이 모이는 형태였다. 이러한 실정에는 대중운동의 모범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진출운동을 하는 간부들의 부족을 받게되었으며 동시에 다수의 학우대중과 결합그럼이 운동의 주안점으로 나서는 과정이 되지못했다. 사회진출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한 간부대중의 형성 과 간부들이 대중운동속에 결합, 다양한 대중운동의 전형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사회진출운동이 3·4학년 고학번대학생들의 자주적인 투기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요구수렴이 활성화의 열쇠

전공 살리고 사회변혁에도 기여해 대학생도 예비 노동자...의식적진출 모색 확산

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비롯한 기층민중의 투쟁을 절제하려 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관과 외국의 기계를 중심으로 지 불리게되고 이에따라 공장이 등장하게 공장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층에 대한 필요로 나타나게된다. 80년대에 이르러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한 제국주의독점자본의 남한에 대한 제1의 경제적으로 부동고관, 직접투자등을 비롯한 남한 노동자의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대학에서는 전문대학, 이공계대학등의 고급

은 소수 몇명만 가능하다) 동시에 자본주의발전이 따라 분업, 협업이 강화되어점으로서 단순노동의 성격이 강화, 상고출신학우들로 많은 부분이 배부어지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80년대에 이르러 그동안과 다르게 예비노동자의 성격이 강화되어지게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는 대학정원의 필요이상의 증대를 통해 경쟁을 통한 노동력의 할당과 동시에 취업경쟁에 의해 임금을 하락시키게 된다. 이에따라 대학분위기는 삭박한 생존의 현상으로 전락하게되며 그

자, 현실을 모야면으로서 졸업이후를 준비한다던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애국적 사회진출운동의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많은 학우들이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자한다. 하지만 올바른 원칙의 부재속에서 성과를 내지못하는 경우가 있다. 운동의 방도는 실천사업의 결과물

자신의 나아갈 분야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에서 출발 이러한 세계관을 인성관화시킨 건강한 예비노동자상을 구현해내는 것이 사회진출운동의 중요한 방도인 것이다. 둘째, 학우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과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주적발전은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것이며 오직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자신

대중적 사회진출모임 우리들의 일터

대중적 사회진출모임 우리들의 일터

아르바이트

보람 있는 일로 학비를 벌자!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분투하는 젊은 지성인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일제나 아르바이트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알차게 활용함으로써 놀라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을 보람 있는 일로 학비도 벌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 봅시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유로운 여가활용으로 능력에 따라 월 5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신영출판사
277-1549, 267-1902, 274-7145 (동국대학교 후문 근처)

동국인의 밤에서 만납시다

11월 19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호텔소피텔 엠베서더 2층 그랜드볼룸

회비: 2만원 (※해당학생복 부진)

11월 19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호텔소피텔 엠베서더 2층 그랜드볼룸

회비: 2만원 (※해당학생복 부진)

1991학년도 각 대학원 신입생 모집

경영대학원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 ①경영학과: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 ②회계학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 ③무역학과: 무역이론, 무역관리, 국제경영
 - ④경제학과: 관리경제, 국제경제
 - ⑤전자계산학과: 시스템시뮬레이션, 전자정보처리
 - ⑥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 ⑦부동산학과: 부동산관리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 11. 26(월) ~ 12. 4(화)
- 전형일시 및 장소: 1990. 12. 8 (토) 14:00 본대학원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영어, 논문, 면접
 - ②연구과정, 관리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 ①혜의 자매대학 등의 연수참가 기회 있음.
 - ②전자계산학과 및 생산관리전공은 본교의 컴퓨터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③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전화 267-8131~9 (교)2273
직통 267-8140

정보산업대학원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 ①정보전산학과: 전자계산전공, 정보관리전공
 - ②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출판편집전공
 - ③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전공
 - ④산업개발학과: 산업개발전공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11.19(월) ~ 11.28(수)
- 전형일시 및 장소: 1990. 12. 1(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①석사과정: 필기시험(영어), 서류전형, 면접
②연구과정 및 관리사과정: 서류전형, 면접
- 특전
 - ①원칙 인문인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함.
 - ②공무원, 군인, 국가산업체 중간-간부요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함.
 - ③제학시 총장장학, 우등장학 등 각종 장학 특전 있음.
 - ④학과 지원은 출신 대학전공학과에 관계없음.

전화 267-8131~9, (교)3292
직통 277-6511

지역개발대학원

경주캠퍼스

- 모집과정 및 학과: ①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②모집학과: 개발행정학과-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경제개발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 11. 22(목)~11. 29(목)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1990. 12. 1(토) 오후 2시 본대학원(진주캠퍼스)
- 전형방법: ①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②연구과정, 관리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①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험자는 전형에서 우대함
②공무원 전원에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 30%)을 지급함
③우등장학금, 총장장학금 등 각종 장학 특전이 있음.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0561)2-0131~6(교)263
직통(0561)41-4131

동국대학교

학내기획

타대학 총학생선거에서 배울 모범과 오류

학생들의 주인의식이 선거풍토좌우

각 대학별로 선거가 한창인 요즘 일부 언론에서는 'NL-PD간의 격돌', '비온중권후보의 낙선', '의전차이로 인한 단일후보의 실패' 등 학생운동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선거는 단순한 '한표 행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학원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라 할 때 대학선거가 좀더 올바른 모습으로 자기위상정착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과, 단과대학선거에서 학우들이 보였던 무관심이 그대로 총학생선거에 드러나거나 오히려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 타학교의 50~60%를 차지하는 투표율에서 보듯 학생들을 '한표로 대량화시키고 일방적 정치투쟁장'과 극심한 정파다툼으로 치달을 경우 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를 '공개된 정치투쟁의 장', '전대에 대한 대중적인 비판과 새로운 대안 창출의 장'이라 할 때 현재 대학내의 모습은 11월3일 학생의 날 집회,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학생들과 동일단결하지 못한채 학생회실에선 키투하느라 찾아볼수가 없는게 사실이다.

선거과정상 가장 침체하게 이견을 보이면서 대외보통을 전개했던 것이 '1학기 통산갑사'이다. 대외보통을 통한 총학생회, 양측선대본 감사특위의 공방을 보여 아직도 선거가 '올바른 사업평가의 장'이 되지 못하고 말쑥한 계승과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선거가 이번 주를 고비로 막을 내리는데 투표율의 저조, 부정선거, 정치판을 능가하는 몰락공세등 우려했던 선거의 모습이 나타났던게 사실이며 대학선거법에 대한 일대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5, 16일 양일간 투표가 실시된 고려대에서는 4명후보가 격돌, 치열하고 혼란했던 선거였다. 평이대, 중신대는 내후보의 선대본에 모두 투표4회, 경고2회의 경계를 내렸다. 또 선거 마지막날은 투표율이 50%를 넘지않아 간신히 54.91%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창캠퍼스에서는 선거보이콧에기가 나뉘며 총투표수가 4만655표를 보였고 정과간의 대차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선위원장 유경수(법4)씨는 "선거보이콧은 나름대로 좋았으나 후보들이 난립해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부 학우들이 반발한 게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서창 캠퍼스에서 나타난 선거 보이콧은 선거속에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가 그대로 드러나며 끝 선거와 연관을 갖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56.4%의 투표율을 보인 한양대

선거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명의 후보가 출마, 긍정적인 선거를 의했다는게 중론이다.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지난9일에는 김재웅총학생회장이 안기부에 연행되는가 하면 2일의 북한영외상영관련 경찰의 학원침탈, 5, 6일의 불법연행규탄집회, 총학생회위원들의 단식농성, 8일의 고최용원열사 투신사살등 정치적인 문제가 선거기간동안에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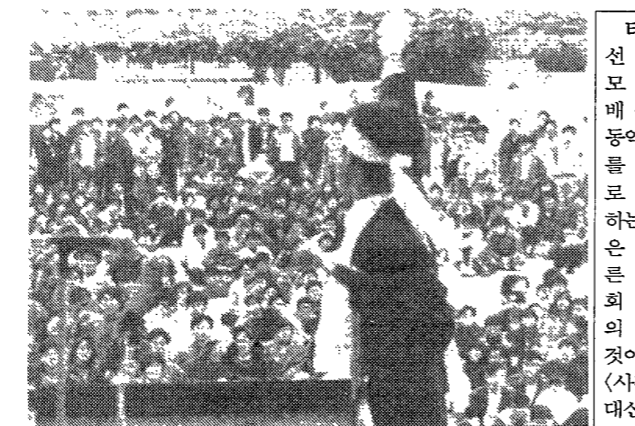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후보들이 함께 참가하는 규탄집회와 5, 6명의 학생들이 유세에 참가하여 선거가 '대중투쟁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 양후보 선대본에서는 선거자금을 공개해 선거자금에 대해 나뉘는 의욕과 유언비어를 일소했는데 이번 공개는 영외교육과 한 학생이 두후보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양후보가 수락해 이루어졌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한양 T-V방송국'에서는 개표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민중대회등 '광명투쟁'에 나서자면 선거보이콧을 하는 일이 있었던 연세대에서는 작년보다 1% 높은 62.7%의 투표율을 보이며 학생회비 분리고지로 학생회의 전원가입제에서 자원제로의 전환이 공중연히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양측 선대본은 선거과정중 '선거캠페인본부'를 결성 '선거로 인해 투쟁을 방지하지 말자', '선거는 학생회강화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이면서 노동자대회, 이후 있을 민중대회를



타대학의 선거모범을 배우고 중앙선거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은 또다른 학생회 강화의 길일 것이다. (사진:고대신문)

가하는 관심을 나타냈다.

또 기존의 중선위임투표 예년의 선거홍보부착등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20개 모과에서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도와 대중적인 학생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했다는 데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 선거기간을 15일에서 12일로 단축, 자기 과열선거로 빚어질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회사업의 이양기이고 선거기간이란 상황에서 학생회의 조직력과 결연이 떨어지는것은 계속됐다. 과 학생회의 활동이 총학생회 원리에 당월 기록될 정도로 총학과 과학생회간의 연대가 두터워지는 서강대의 일부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된 현실적인 공약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과 학생회선거와 총학생회선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치뤄졌으므로 과 학생회선거에서도 정책자료집을 내

다.

또 선거과정에서 보여왔던 양측 선대본이나 여중 선대본, 중선위의 모습들을 볼때 선거후에 반성하고 평가할 문제들은 쌓여있다.

문화선동대는 도를 넘어 학생들을 더욱 자극시킬 수 있는 공약들을 기획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것에 그치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이 다지 선거의 주인공인 양 많은 학생들이 외면된 채 '표발일기'만 많이 있던 '표적'은 기적으로 학생들이 전략되는 선거는 지양해야 한다.

총학생회 무용론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음에도 선거라는 열렬한 공간속에서 총학생회 선대본은 후보의 공약과 정책만을 제시할뿐 총학생회강화를 이루는데는 역부족인 지적이다.

또 서강대의 예에서도 드러나듯

중선위가 과까지 선거 교양하는 대학도 있어 과·단대 학생회 들며 살아 있는 공약 입안

준비,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화인하는 것이 되기도 했다.

한편 기호번의 정책자료집이 책표지로는 가장 비싸게 거래된다는 '무평택코맹자'인데다 호화장정으로 꾸며져 '서충원·전대협에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등 흑색선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번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임원태(국문8)군은 낙선된 기호2번의 의견수렴에 대해 "총학생회는 특정정파의 것이 아니라는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총학생회를 공개하고 이들을 자주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다.

77.4%라는 투표율로 전국 최고

의 선거참여를 보인 서강대는 이번 총학생선거를 학생회강화로 자리매김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각 단과대와 자치기구들도 거의 경연으로 치뤄져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각후보로 명확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학생들은 두차례의 유세와 공청회에 열린 1천여명의 참

과와 총학생회사업들을 동시에 평가하기도 했다.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연세대의 예에서 보듯 선거에 대한 반응을 모범은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는데 있을것이다.

한양대에서 있었던 선거자금공개는 대학선거가 임정한 선전물과 홍보보에 쓰이는 선거자금을 학생들이 스스로 요구, 공개받음으로써 좋은 선례를 남겼다 하겠다.

내년 선거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선거자금을 중선위에 조정해 지급처럼 끝도 없는 선전물공세나 양선대본의 경쟁을 막고 정작 해야할 일을 방지하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했다.

또 선거방법에 있어서도 유세, 공개청문회같은 획일적인 선거를 탈피, 후보들이 과학생회, 단과학생회를 찾아 그속에서 정책과 사업내용이 입안되는 선거형태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양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11월 총선거를 올바른 준비해지지 못했

선거의 의미를 중선위에서 교양주체적 참여를 확대시키는데 불매동약의 중선위는 20명의 중선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너명만이 실무적인 일에 쫓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타학교의 전학대회등과는 다른 위상을 지닌 총대의원회가 중선위 역할을 겸하면서 홍보물이나 부속하는 실무적업무를 탐피해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조직력확비와 자체 교양이 요구되어진다.

선거속에서 정파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상을 보이면서 총파주의로 치닫는 모습들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회를 불신하고 학생운동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일련의 학생회사업들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할때 유권자인 학생회들, 후보들이 과학생회, 단과학생회를 찾아 그속에서 정책과 사업내용이 입안되는 선거형태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양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11월 총선거를 올바른 준비해지지 못했

(참)

민족교육 압살하는 UR협상 반대한다

교원고시제에 대한 국사립대의 대응



지난 10월8일, 헌법재판소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1항(국립사대졸업생우선임용제)이, 헌법 제11조1항(평등권)과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후, 문교부에서는 교원임용고시 임팩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사립사범대간에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다르게, 국·사립사범대에서는 이번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해, 연대투쟁이 모색되고 있다.

국·사립사범대에서는 이번 사태는 본질적인 원인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오는 교원직제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문교부에서 내놓은 '임용고시제'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은 될지 몰라도,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실마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국·사립사범대 생활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교원직제의 본질을 감추고 발표한 것이 임용고시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용고시제에 대해 지금, 국·공립과 사립사대는 약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공립 사대는 한마디로 임용고시 실시는 있을 수 없더라도 임용은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과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원조합대안등으로 노골화되고있는 현재 문교부의 교육독점모습을 분쇄하고, 올바른 교직출을 위한 보장방기 위한 공동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국·공립과 사립이 연대투쟁할 것인가? 연대투쟁이 어떤 지점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닌 서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번째로 과별학급해소, 법정교원수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재정확보 투쟁이 요구된다.

두번째로 제기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교직과정의수사제한이다. 비사범교원이수사자가 국·공립과 사립사대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진출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투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사대생의 교직진출을 해서 생존권싸움이 아니라 올바른 교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학생대중과 함께 고민해서 얻은 교육민주주의의 관점을 틀어쥐었음에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셋째, 사립대학의 재원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직과정의수사 제한.

둘째, 국·사립차별철폐를 위한 공개·평등 임용이다.

이런 조교를 폭행, 전치5주의 상처를 입힌 농학과 박모군에게 '무기정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학내폭력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조교폭행사건은 또다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폭력사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험을 보던 도중 박모군의 전내페이퍼를 조교가 압수하자

홍정의 (사범대·국교과)

동막로

"학생 규찰대는 왜 만들었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을 막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시비를 거는거야?"

"옷을 입히세요. 선배가 후배들 싸우는 걸 구경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난 17일 오후8시20분경, 학생회관앞에서는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두명의 학생들이 서로 뒤엎겨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었다. 이를 본 수위야자제와 규찰대원들이 달려가 싸움을 말리자 싸움을 지켜보고있던 있던 술에 만취한 선배라는 사람은 오히려 여자를 폭행했다. 영문과 학생이라 밝힌 이 학생들은 지나가는 여학생을 의식한 듯 바지를 입고 형질수설 달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있는 교무위원회에

폭력난무

군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이 일도 조교는 제일병원에서 중대성심병원으로 옮겨져 5주치료를 받고 치료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과에 집게된 폭력사건은 많은데 이에 대해 학생과 한관계자는 "학생회간부폭력사건 기재지는 유기정화 5명, 견책(근신)4명의 징계를 받았고 백상의 집체토의사건과 관련, 5명이 유기정화등 징계를 당했습니다. 또 분관수위실 근무자폭행및 기물파손, 방배대에서 과친구들과의 폭력등 학생에게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라고 밝혔다.

학생회간부 폭력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한학생은 "이 모든 것은 젊은 열기가 왕성할때 슬며시 한 행동이니 선처바랍니다"라고 진술서에 쓰기도 했다.

모든 민주적인 소양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려는 폭력이 언제까지나 방지될지 의문이다.

(남철우記者)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내 젊음의 꿈은 모스크바의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더 이상 꿈꾸지 않는 도시, 모스크바— 예술도 혁명도 모두 과거의 한부분으로만 남아있을뿐 그 넘치던 위대한 혼은 작은 생활들 속에 묻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스크바는 꿈꾸는 힘을 갖고 있어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젊음의 꿈이라는 것도 마참까지인 것 같아요."

모스크바 대학의 첫번째 한국인 학생인 박성준(20)씨는 모스크바에서건 서울에서건 젊음의 꿈 거머쥐는 가능성은 같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가능성은 변화에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변화가 매순간 일어나는 건 아니죠. 물이 계속 끓다가 어느순간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절망과 꿈의 반복이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의 말대로 러시아혁명으로 그런 종류의 변화인지모른다.

"모스크바도 지금은 잠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꿈을 키우는 낯선 한 한국청년처럼요."

모스크바 대학이 서있는 레닌스키 언덕에는 간간히 내리는 잔눈과 함께 벌써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북극의 겨울은 유난히 길어요. 하지만 모든 생명활동이 멈추는 건 아니죠. 제 젊음의 가능성과 노력, 그리고 꿈도 멈추지 않을거구요."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모스크바대학 정치경제학과 1학년 박성준

꿈을 향해 의지를 불러주는 젊은 이야기를 찾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된 이야기는 대학지평고로 소개하고 소정의 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중구도림동 108-2 제일기회 제작 12국 대학지평고 / TEL 724-0553

인재와 첨단기술의

세상을 바꾸는 힘은

● 책적에 협조해주신 KOTRA와 김포서관 관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보도

민족교육 압살하는 UR협상 반대한다

“미군이 직장뺏고, 전경이 비호하고”

미헌병, 곡괭이·도끼자루까지 동원해 구타 업체간 경쟁시켜 20억원 덤핑계약...전국적 파업결의



◁16일, CAMP JACKSON 미군교육부대에 투입된 경비원들을 내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조합원들.

현장르보

파업 52일 맞고 있는 의정부 미군부대 용역 경비원을 찾아

해방과 더불어 미군이 이땅에 발을 들여놓은지 45년이 넘으면서 미국문화는 우리생활 전반에 물들어 버렸다.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지촌은 초창기에는 미군부대가 먹고살수 있는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물론 현재는 기지촌이라고 하더라도 그 옛날처럼 미군들에게 밥줄이 달려있는 절박한 때는 아니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도 미군은 한국 전역에 깔려있고 미군부대가 존재하는 한 한국인들과 접점이 있을수 밖에 없다. 아니, 오히려 현재 주한 미군부대는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바로 미군부대 한국인 경비원들이 그들인 것이다.

안을 내놓고 회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으며 회사측도 어느정도 수용을 하려했다. 그런데 '한국경보'라는 용역회사가 1.69%라는 인상을 내놓고 미군측에서는 한국경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도 3년으로하는 장기계약을 한것이다.

"기존에 용역을 맡았던 봉신이나 경화 기업은 19%정도의 인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1.6%를 제시한 한국경보에게 입찰이 넘어갈수 밖에 없었죠. 이렇게 된으로써 기존업체와 새로 입찰된 한국경보와의 3년간 계약금을 비교해 볼때 약 20여억원의 덤핑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경비노조원들은 10월1일 전국적파업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 다가와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며 취재를 막고 사진기를 뺏으려 했다.

전경과 한강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침 그곳에 있는 여러 조합원들의 도움으로 봉고차에 올라 CAMP ESSYONS부대를 떠날 수 있었다.

합계 차에탄 노조원은 지금 다른 부대에서 미군과 한국경보의 광고를 통해 모집된 경비원들을 투입했기때문에 이를 저지하려 가는길이라 했다.

노란 부대역시 정문에서는 전경들이 방패를 들고 지키고 있었으며 그 한쪽에서는 50여명의 조합원들이 라면을 끓여 저녁식사를 대신하고 있었다. 의정부 미군교육부대인 'CAMP JACKSON'의 이 부대는 전날 15일 15명의 경비원들

미국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후6시쯤이 되자 부대밖에서 소란한 이유를 알았는지 15명의 경비원중 8명이 스스로 부대를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미군을 통해 해왔다. 곧이어 8명의 경비원들은 부대정문을 통해 나왔으며 이를 밖에서 지켜보던 50여명의 노조원들은 박수를 치며 오히려 부대를 나오는 이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하루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나오는 이들에게 몇마디 물어 보려 하자 의정부경찰서에서 나온 경찰들이 '학생들이? 이 일하고 무슨 상관이야? 미안하다'라고 못부처 위협하고는 8명의 경비원을 전경차에 태우고는 부대를 떠났다.

"나머지 7명도 반드시 내보내야겠지요. 그러나 사실 저 사람들이 무슨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상황도 모른채 업체에 고용돼 근무를 하려고 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들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노조부위원장 구영희씨는 말한다.

8명의 경비원들이 부대를 떠난후 50여명의 노조원들은 정문앞에 자리잡고 앉아 소주를 한두잔씩 주고 받는다.

올해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명익씨는 "가장 큰 어려움이려면 조합원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과 대부분 사람들이 빈곤한 생활이기에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근데 20여년이 넘게 살아오고 억

늘려왔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려는 의지 하나로 50일이 넘도록 잘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상황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우리만의 싸움이 아닌 우리국민과 미국이라는 나라와 싸우는 것이라는 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말한다.

"부담대우요? 부담대우라면 우선 미군 직속경비원들과 거의 3배가까운 임금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그뿐인가요. 우리 경비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밤근무가 있을때는 낮에 노동일을 하고나서 부대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피곤해서 잠만 오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근데 3번만 오는게 발전할때는

10년 근무했던 20년 근무했던 무조건 해고해 버립니다" 한두잔씩 마시는 술은 이런저런 얘기를 토로하게 했다.

"우리는 거의 10-20년을 근무하면서 사실상 미국사람들에 대해 별로 악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50세 이상 사람들은 더할겁니다. 그 옛날 미국이 우리에게 원조물자를 가지고 들어와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양놈들이 우리를 지켜주러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켜주시는 커녕 지금은 오히려 우리들의 피와땀을 빨아먹고 있는 거라구요. 미군놈들이 우리명에 있을 이유는 이제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라며 점점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60세 가까운 한 조합원은 자신의 말이 결코 슬기롭게 하는 말은 아니며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술자리를 뒤로하며 떠나려 하는데 "용역업체만 갈아치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다른 용역업체가 다시 이런식으로 미군과 연결되는 날에는 우리는 또다시 덤핑으로 팔려지는 신세가 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라는 한 조합원의 말은 이번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었으며 20여년이 넘게 몸담았던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것임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최윤옥 記者)



◁'CAMP ESSAYONS' 부대에서 침묵을 치고 농성중에 있는 모습.

으로써 오늘로써 파업 52일째를 맞고 있습니다"라는 의정부 민족민주운동시민연합의 김백수씨로부터 상황을 들으며 도착한 곳은 637포대라는 'CAMP ESSAYONS' 부대였다.

부대 바로앞에는 파업노조원들이 침묵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었으며 침묵주위에는 세발간 글씨로 '양놈들 물러가라' '악덕업체 한국경보 이등용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붙어있었다.

부대앞에는 의정부경찰서에서 나온 한국인 전경들과 미군들이 곡괭이 자루와 강목등을 들고 부대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파업이후 미군들과 한국 경찰들은 노조원들과 싸움이 일어난때마다 곡괭이와 강목, 심지어는 도끼자루까지 들고나와 4-50십대의 경비노조원들을 사정없이 구타한다는 말을 듣고 곡괭이자루를 들고 있는 전경 사진을 찍자 이를 본 전경 한

이 발사하여 투입되어 지금 근무중인것 같았다.

이부대 앞에서 만난 신원기 경조원인 조영문씨는 지난 11월5일 CAMP ESSAYONS부대 앞에서 미군의 호위를 받으며 부대로 투입되는 경비원들을 막는 싸움에서 미헌병이 휘두른 곡괭이자루에 머리를 다친 경험이 있었으며 또다른 조합원 손운우씨는 경찰의 방패에 맞아 이빨3개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고 한다.

"용역회사도 나쁜놈들이지만 미군놈들은 더 못된놈들입니다. 업체간에 경쟁을 시켜놓고서는 1.6%라는 가장 낮은 인상을 제시한 한국경보와 계약을 맺는 그야말로 험악에 우리 경비들을 고용하려 했습니 다"라며 미군측에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조영문씨는 "지금 조합원들은 이 싸움이 업체와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미군과 더 나아가

상륙논쟁에 U-R 협상

(3) 교육부문

올해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UR협상은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엄청난 충격과도 이지만 우리에겐 농산물분야를 제외하곤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5개 서비서비스 상품목의 하나로 포함되어있는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사회체육과 여취연수원 및 소규모 대학분교 설립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호주교육위원은 곧 TOEFL 시험까지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일간지에서 UR협상이 타결되면 외국어학교내 각종학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문화원도 부산, 광주, 전주, 대전등지에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개설할 움직임이고 일본은 임시학원 진출을 위해 타당성검토까지 마친 상태이다. 프랑스는 미술과 요리부분, 이탈리아는 패션부문에 강한 진출의사를 보이고있다.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볼 때 UR협상이 체결되더라도 많은 상태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한국의 교육서비스 부문에 투자하려고 시장조사까지 마치고있는 형편이다.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구

체적으로 교육부문에는 총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1) 외국대학 분교 설립이 가능해져 상당수 학생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분교 졸업만으로 미국 본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이고 본교의 교육정책은

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드라마스쿨, 패션스쿨, 컴퓨터스쿨 등이 밀려올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귀족화 된 사립학교가 나타나 값 비싼 수업료와 독특한 교육 방법으로 상류층의 자녀들을 흡수할 수도있다.

3) 외국 고립, 대입학원의 설립으로 임시학원의 시험내용이나 출제방식이 학교현장의 교육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학원의 경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강좌부차요청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는 비용의 부담을 덜고 경영을

로써 특권적 서구 상류문화에 길들여질 것이다. 아직 공교육제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방만하고 영세한 국내 유아교육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중류이상의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5) 그밖에 각종 교재, 부교재, 각종 테이프, 실험실습 기자재, 교육기자재에 진출하여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고 거거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금은 외국으로 그대로 송금하거나 외국교육서비스산업을 살려주는데 사용될 것이다.

도 공교육비보다 파의, 교재비등 사교육비가 훨씬 많은 교육재정의 부족과 임시경쟁 교육의 문제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용역이란 미명아래 사기업화되어 질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지못한 사립학교들과 임시교육을 부채질 해온 학원산업은 교육분야의 개방앞에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우수한 것들을 교육에 도입하여 저명하게 인력양성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나"고 한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교육과 같은 문화적 침략을 강화하려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산업 자체를 통한 이익확보에 있었지만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서구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그들 나라의 특권 자본의 상품판매를 위한 정서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고 친숙해지게 하려는 것이다.

상품판매 위한 정서마련의도

외국학원과 합작, 국내영세학원 도산 외국대학 분교 난립...민족교육 위협

그대로 우리나라 대입과 중고등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과열되어 있고 유명대학졸업이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2) 외국식 각종학교가 설립되어 소자본으로 설립이 용이하고, 교육과정에서 융통성이 큰 이점을 활용하여 미

쌓은 후 직접설립하려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이다. 극히 영세한 학원이 대부분이므로 일단 합작투자자와 같은 임시방편으로 나서겠지만 이후 전면적인 진출이 이루어지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4) 유아(유치원)교육에도 진출하여 주로 상류층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서구 상류 사회 유아교육부터 받게됨

비단 교육서비스가 아니라도 UR의 다른 분야들이 교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식품, 문화예술, 오락, 광고등 우리들이 먹고 입고 쓰고 보는 모든 분야들이 외국 것이 판치게 되면 사회문화화자가 예측되고 학교교육의 힘은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

교육을 통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되고, 그렇지않아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드높은 우리민족의 교육열이 유아교육에서부터 임시학원, 각종학교, 유명대학분교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족의 역사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철저한 신식민지 교육의 왜곡된 길을 밟지않도록 교육부문의 개방을 저지해내는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정진화
(전교조 교육선전국)

구슬이 서말이라도...

올해도 대학생활은 화살처럼 쉼 없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젠 재래 뉘적이며 이곳 저곳 쫓겨다니며 분주히 보낸 1년. 지금은 새롭게 배웠던 것, 느꼈던 것, 체험한 것들을 차분히 정리할 때입니다. 깊은 사색을 통해, 우리가 겪었던 활자화된 사상들을 내 사고와 행동의 일부로 내면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슬도 깨어야 보배이듯, 올 1년 대학생활에서 얻은 보배로운 경험들을 산시식, 산경험으로 엮어내야 할 때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생활문화

민족교육 안살하는 UR협상 반대한다

전국적 음악운동체 포괄하는 문예통일전선

지난 6월 여의도 여성 백인 회관에서 100여명의 음악가, 노래운동가들이 모여서 민족음악협의회(민음협) 발기대회를 가진 바 있다.

노동은(목원대)교수를 준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발기 선언문을 낭독하고 각 분야별 위원회장·부의장들을 선출했다. 이 대회는 최초로 전국적 차원에서 음악운동 중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대회였다. 미술이나 음악·연극 분야에서는 이미 장르별 협의회를 가지고 있었던 음악 분야에서는 이제야 창립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1월24일 드디어 민족음악협의회가 창립된다. 이에 발맞추어 민족음악협의회와 함께 배경과 역사적 의의와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음악운동전영은 다른 장르와는 달리 비전문 음악가들의 노래운동에서 출발한다. 노래운동이 사회전반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지는 불과 5, 6년이지만 노래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역사적 배경의 시작은 꽤 오래되었다. 70년대 유신 억압을 겪고 교회 같은데서 민중의 정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에서부터 80년대 대학가나 민족민주세력의 음악문화를 대변해준 소위 운동가요, 민중가요는 노래운동의 전사라 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대학가의 노래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 노래운동을 조직화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노래라는 매개로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지고 활동을 벌이는데, 창작, 공연, 테이프제작과 공연, 현장 노래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은 생산물을 축적해 갔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나갔다.

87년 6월학생과 7, 8월 노동

자 대투쟁을 계기로 각 단위 사업장에 수천개의 민주노조가 세워지고 각계 각층의 대중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노래운동은 공급이 부족해질 만큼 사회적 요구가 커져감에 따라 가속적으로 발전해 갔다. 더구나 그동안 거의 침묵을 지켜왔던 계도권 음악인들의 각성과 함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래운동의 힘은 증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래운동은 음악운동으로의 변모를 모색하게 되고 그동안 논쟁이나, 주장에 비해 작품 자체에서 소홀히 다루어왔던 음악적 형식, 양식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88년 이후에는 각 단위 노조의 노래패나 대학내 노래 씨들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노래 자체의 협의회 조직도, 탄생하였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같은 단체는 음반제작을 합법적으로 해 내면서 상업적 유통구조에 직접 뛰어들어 대중세를 모아 오고 있다.

상대로 치부되면서 각 노래 패간의 상호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또 중요한계기는 민예총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각 장르별 협의회를 상층에서 연합으로 묶어 세워진 민예총에 음악 분야는 협의체가 아닌 한 위원회(음악 위원회)에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었는 상

적 달랐지만 공통적인 문제에 함께 대응해 간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창립을 앞두고 규약 등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은 서울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새벽(노문연음악분과), 예술원, 노동자노래단, 민족음악연구회, 한국음악 연구소, 민요연구회, 정대준, 안치환,

고 받으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제도적 법적으로 제약하는 진보적인 음악 활동에 대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자주적인 음악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의 모색과 실천이 이루어질 계기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선부분 기대가 많았으나 일정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기대한다. 그것은 우선 노래운동 단체가 가졌던 관습적인 폐쇄성인데 이는 민음협에서도 동시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좀 더 많은 음악가들을 흡수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중전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또한 협의회를 만드는 과정이 아래부터 성숙되지 않은 점이나 각 단체와의 입장차이를 크게 극복하지 못한점도 하나의 해결할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제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천의 행태가 겨우 연합 공연의 반복으로만 나타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여하튼 오는 11월24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벌어질 민족음악협의회 창립과 대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특히 축하공연은 전국 노래운동단체가 펼치는 무대이니만큼 많은 흥미를 유발시킬만 하다 하겠다. 이날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음악계를 주도하면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는 세력에게 민음협이 부서서 존재로 다가 서길 바란다.

김수현 (민족음악연구회)

89년 전국노동자신문 창간공연에 이 자주 연합이 이루어진 각 노래패간의 상호 연대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89년 2월 김장남, 이영미, 문호근 등 음악 평론가와 음악운동가들이 모여서 노동은교수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각 단체들을 규합해 가는 형태로 6월에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각 단체의 성향은 조금

김장남, 이영미, 노동은, 이진용, 강준일등과 지방에 소리새벽(마산), 노래야나우리(부산), 두억신이(진주), 친구(광주), 소리모듬(전주), 산하(대구), 햇살(안동), 녹두패(청주), 그날(대전), 노래마을(성남), 김광복 교수, 정세원등 전국적인 노래운동 단체를 망라하고 있다.

그럼 이제 민족음악협의회 창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민음협은 음악운동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직체이면서 문예통일전선체의 기틀이 될 수 있다. 음악운동이 협의체를 만들만큼 성장했다는 것과 연합적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아직은 튼튼한 조직체의 위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노래라는 장르가 포괄해내지 못하는 면을 오히려 노래를 가지고 음악운동을 선도해가려는 움직임이 민음협 창립에서 보여진다. 그동안 음악운동은 노래운동 전영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음악운동 전영에서 오랜역사를 통해 달린 것이 온 노래운동이 민음협의 주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역사적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민음협 창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몰아치는 음악운동' 단계와 진보적인 음악가들을 발굴해내고 서로 자극을 주

고 받으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제도적 법적으로 제약하는 진보적인 음악 활동에 대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자주적인 음악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의 모색과 실천이 이루어질 계기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선부분 기대가 많았으나 일정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기대한다. 그것은 우선 노래운동 단체가 가졌던 관습적인 폐쇄성인데 이는 민음협에서도 동시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좀 더 많은 음악가들을 흡수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중전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또한 협의회를 만드는 과정이 아래부터 성숙되지 않은 점이나 각 단체와의 입장차이를 크게 극복하지 못한점도 하나의 해결할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제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천의 행태가 겨우 연합 공연의 반복으로만 나타날 우려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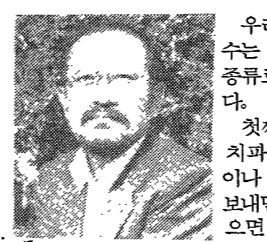
여하튼 오는 11월24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벌어질 민족음악협의회 창립과 대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특히 축하공연은 전국 노래운동단체가 펼치는 무대이니만큼 많은 흥미를 유발시킬만 하다 하겠다. 이날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음악계를 주도하면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는 세력에게 민음협이 부서서 존재로 다가 서길 바란다.

김수현 (민족음악연구회)

탈리아 신장에

나는 어떤 대학교수인가

黃 弼 昊 (문과대 교수·비교종교학)



우리나라 대학교수는 대략 다음의 4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른바 '정치과 교수'는 여당이나 야당에 추파를 보내면서 기회만 있으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다. 물론 그들은 정부 편의 자문위원이 될 수도 있고, 반정부 편의 운동권에 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현실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해결의 명제를 내걸면서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른바 '보좌과 교수'는 언제나 과장, 실장, 학장, 처장, 총장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교수의 권위가 이런 '자리'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물론 대학도 엄연한 사회기관이므로 최소한의 제도를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누군가는 이 '더러운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 특히-울림폭이 아니라-내림폭으로 치닫고 있는 동국대학은 성실한 보좌자를 절대로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수의 본업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보좌과 교수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보좌를 싫어한다고

공언하고 다니며,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서 연구에 몰두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또한 그들은 한결같이 바쁜 삶을 영위한다고 큰소리 치며, 그렇게 바쁜 삶이 마치 대학을 위한 희생인 양 걸터대한다. 실제로는 매일 밤 술잔과 바쁘다.

셋째,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수는 '낭만과 교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적어도 겉으로는-정지나 보좌에 연연하지 않으며, 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연구에 몰두하지도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가장 초연한 중용의 입장을 취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이며, 대학교수라는 막중한 직책을 그저 살아가는 방편-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편-으로 간주하는 월급쟁이일 뿐이다.

넷째, '연구과 교수'는 세상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자신의 진리탐구에만 전념한다. 진주만 공적도 모른채 연구에만 몰두해 있었다는 어느 일본 교수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순수한 연구과 교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증명되지 않은 결론'이다. 나는 아직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나의 파문의 탓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연구과 교수가 못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이 글은 결국 필자의 누워서 침뱉는 행위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생활속의 민족의학

金 甲 成 (한의과 대학 조교수 등극 한방병원 침구과 과장)

며칠 전도 일간지 석권에 어느 대학의 부속병원 소아과에서 실용 조사를 한 한국 소아의 한약 복용 경험과 그 효과에 대해서 보도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조사대상 중 약 60%의 어린이가 녹용(鹿茸)을 주체로한 보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에서 56%의 어린이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0.5%의 어린이만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의 내용은 접어두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고가의 보약 특히 녹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녹용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효능이 있는가? 녹용은 척추동물 포유강(哺乳綱) 우제목(偶蹄目) 녹피(鹿科)에 속한 사슴의 딱딱하게 골화(骨化)되기 전의 어린 뼈를 말하는 것으로

보약중의 보약 '녹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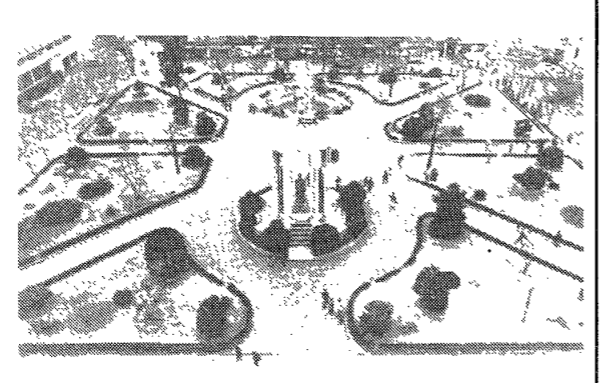
제)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용의 효능에 대해서는 실로 다양하여 모두 소개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강장(強壯)작용과 근골(筋骨)을 튼튼히 하여주고 인체의 양기(陽氣)를 보(補)해주며 인체의 허손(虛損)을 치료하니 영양(營養)이 아닐 수 없다. 근간 녹용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소련 일본 미국등의 외국에서도 높아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녹용의 주요 성분은 pentocroin이라는 물질이 화학의 방지, 항병력(抗病力)성장촉진의 기능에 작용한다는 것과 혈관에 작용하여 콜레스테롤(지방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동맥의 경화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녹용이란 좋은 보약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체질에 따라 또는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약제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 4대 산지의 녹용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인이 선호하는 것으로는 만주에서 생산되는 매화록이며 이시진의 '본초강목'에도 녹용은 산림에서 서식하는 매화록의 뼈로서 양기(陽氣)를 얻으므로 보양지제(補陽之

동학의 팔정도

우리학교가 조계종 종립대학이라는 것을 모르고 동학을 방문한 이들은 눈에 자주 띄이는 스님네들의 모습에 어리둥절하기 쉬울 것이다. 중학교과서 우리학교는 여러 상징물들을 갖추고 있는데 명진관원 불상, 정각원, 노래상을 들 수 있다. 이들중에서 불교의 이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 보다 '팔정도'를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40년대 본교가 지금의 자리에 이전한데 1956년과 57년에 걸쳐 석조관(지금의 명진관)을 준공, 이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념을 나타낼수



있도록 넓적한 평장에 여덟 갈래의 길을 만들어 팔정도라 명명하고, 그 중앙에 불상을 세운 것이다. 불교에 있어 팔정도(八正道)는 바른 견해(正見), 바른 생각(正思), 바른말씨(正語), 바른행위(正業), 바른생활(正命), 바른노력(正精進), 바른기어(正念), 바른

팔정도를 걷다가 '무슨 길'이 이렇게 복잡하게 뽕뽕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름 그대로 팔정도를 행하도록 노력하면서 부처님의 그윽한 가르침을 바라볼 수 있는것은 우리학교에 다닌다는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섬유-메리노 울

처음일수록 옷은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가 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구애받지 않는 여유가 옷에서부터 배어나는 못내학과, 현실의 표상인 사회가 얼마나 넓은 세계인가를...
 지금껏 자유로운 이름의 옷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 당신은 넥타이와 양복의 격이 요구되는 사회인으로서, 책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적응해야 하는 사회초년생들-
 메리노 울로 여유롭게 시작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자연의 부드러운, 자연의 편안함을 정성을 다해 전해드리는 메리노 울- '옷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코코샤넬의 말처럼 메리노 울은 처음 결정될 당신의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만약 출근 첫날 메리노 울 양복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사회인으로서의 현명한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옷 편한 느낌-메리노 울
 가볍고 고운 양털로 만든 메리노 울 순모 의류는 가볍고 쾌적하여 편안한 느낌을 주며 뛰어난 탄력성으로 구김이 기도 쉽게 원상태로 회복되어 항상 신뜻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마이크 드리는 약속
 올 제복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올마이크를 확인하십시오. 세계 130여개국에서 사용되는 올마이크는 100% 순모로 정성껏 만들었다는 '품질증명' 마크입니다.

